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의 의미적 특징*

표 언 창**

<目 次>

I. 머리말	3. 비자주성 추동식 술보구
II. 비자주변화동사	4. 비자주성 ‘술어중심어+得 +정태보어’식 술보구
III. 비자주성 술보구	IV. 맺음말
1.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	
2. 비자주성 동정식 술보구	

I. 머리말

‘把’구문은 현대 중국어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특수한 동사술어문이다. 대다수의 ‘把’구문에서 ‘把’의 목적어와 술어동사 사이에는 동목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把’구문은 동작이 어떤 사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는 처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王力(1959: 160)는 이런 ‘把’구문을 ‘處置式’이라고 불렀다. 이 이외에도 ‘致使¹⁾’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이 있는데, ‘把’는 ‘使’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런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에 들어 있는 VP의 의미 특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 ‘致使’는 ‘...에게...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편의상 ‘致使’라는 중국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리를 위해, 이런 ‘把’구문을 부호로 ‘NP1+把+NP2+VP’로 표기한다. NP1은 주어이고 NP2는 ‘把’의 목적어이고, VP는 동사구이며, 주로 동사나, 술보구(동결식, 동추식, 동정식,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로 구성된다.

- (1) 冬兒出現在母親面前時像個幽靈，把辣辣嚇了一跳。
 冬兒이 어머니 앞에 나타났을 때 유령과 같아서 辣辣를 깜짝 놀라게 했다.
- (2) 今天忙了整整一天，簡直把我累暈了。
 오늘은 온종일 바빠서, 나는 지쳐서 어지럽다.
- (3) 孩子考上了大學，真把父母樂壞了。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자, 부모를 몹시 기쁘게 했다.
- (4) 我把他嚇回家去了。
 나 때문에 그는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 (5) 老頭更緊地摟着他，把他憋得喘不過氣來。
 노인은 그를 꼭 껴안자, 그는 숨 막혀서 숨이 턱에 닿았다.

(1-5)의 ‘把’는 모두 ‘致使’ 의미를 나타내며, 각각 ‘使’로 바꿀 수 있다.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과 ‘處置’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다른 점은 전자의 NP2는 술어중심어의 수동자가 아니며, 술어중심어의 당사자이다. 즉 전자의 NP2와 술어중심어 사이에는 주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NP2는 술어중심어의 수동자이며, NP1과 술어중심어 사이에는 주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에 있는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은 ‘把’의 목적어(NP2)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런 동작은 앞에 있는 주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把’구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把’의 목적어는 술어동사의 수동자가 아니지만, 동사의 역할은 ‘把’의 목적어와 보어를 주술관계로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의 특징은 술어동사가 이미 ‘把’ 앞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²⁾

(6) 我一進門，大家都笑了起來，一時把我笑糊塗了。

나는 문에 들어가자마자 모두들 웃기 시작하자, 한동안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7) 他把那種既簡單又可口的涼拌菜一介紹，真把我說饞了。

그가 단순하면서도 입에 맞는 그 차게 무친 요리를 소개하자 나는 군침이 들었다.

(6)의 술어동사 ‘笑’가 나타내는 동작은 ‘把’의 목적어 ‘我’가 한 것이 아니라 ‘把’ 앞에 있는 ‘大家’가 한 것이다. (7)의 술어동사 ‘說’가 나타난 동작도 ‘把’의 목적어 ‘我’가 한 것이 아니라, ‘把’ 앞에 있는 ‘他’가 한 것이다.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연구는 ‘把’ 혹은 VP에 있는 V(술어중심어)의 의미 특징에 중점을 두었으며, 술보구의 의미 특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張豫峰(2006:146)은 ‘把’의 강한 ‘致使’ 의미는 동시에 문장 중의 술어중심어(主要謂詞)의 특징, 즉 VP에 있는 V의 통사와 의미 특징을 결정한다고 하였고, 이런 용언(謂詞)은 문장이 나타내는 특징의 강제 하에 혹은 강한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의 영향 하에 ‘外力性’이나 ‘致使性’을 지니며, 즉 용언은 외부 힘 때문에 사물로 하여금 어떤 상태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런 용언은 의미상 일가(一價)의 용언도 있고, 이가(二價) 용언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徐燕靑(1999:55)은 술어는 의미상 모두 일종의 겸직동사이며,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그 의미 특징은 [+處置, +結果]로 개괄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賀曉玲(2007:366)은 VP구조의 주요동사는 [+變化, +結果]의 이중적인 의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朱景松(2007:12)은 술어에는 늘 ‘急, 忙, 累, 氣’가 결과보어를 가진 형식이나, 구어에서는 때로는 보어를 말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致使’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把+명사+急/忙/累/氣+得’와 같은 격식이 구성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2) 呂叔湘(1986:제1기:8) 참조.

본고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술보구의 자주성과 비자주성 이론을 이용하여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에 들어 있는 VP는 어떤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致使’ 의미의 ‘把’구문은 일반적으로 ‘使’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使’구문은 ‘致使’ 의미의 ‘把’구문으로 바꿀 수 없다. ‘把’구문의 VP의 의미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把’구문의 VP와 ‘使’구문의 VP는 의미 특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자주변화동사

동사는 자주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로 나눌 수 있다. 자주동사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주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는 동작자가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看, 幫, 說, 聽, 做, 學, 分析, 考慮, 介紹, 休息’ 등이 이에 속한다. 비자주동사란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낸다. 즉 동작 행위를 한 자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동작 행위는 변화나 속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자주동사는 다시 변화동사와 속성동사로 나눌 수 있는데, 변화동사는 동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病, 氣, 想, 嚇, 死’ 등이 이에 속한다. 속성동사는 정태적이고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是, 有, 等於, 知道, 懂, 能’ 등이 이에 속한다.³⁾

조사에 의하면 비자주변화동사는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동사가 VP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把’구문의 VP는 술보구로 충당한다. 어떤 의미 특징을 지닌 술보구가 VP에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제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馬慶株(1992:22) 참조.

- (8) 他的這種精神、人格把所有的人都感動了。
그의 이런 정신과 인격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 (9) 忽然砰的一聲，把他嚇了一跳。
‘핑’하는 소리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 (10) 他把我氣了一頓。
그는 나를 한 바탕 화나게 했다.
- (11) 她真不幸，跟丈夫離婚不久，又把個孩子死了。
그녀는 참으로 불행하다.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
이가 죽었다.
- (12) 怎麼把特務跑了?⁴⁾
어째서 스파이를 달아나게 했느냐?
- (13) 第九年，太妃把我乳母走了。
아홉 번째 해에 태비는 내 유모를 떠나게 했다.

(8-13)의 ‘感動’, ‘嚇’, ‘氣’, ‘死’, ‘跑’, ‘走’는 모두 비자주변화동사이며,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이런 비자주변화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여야 하고 그 뒤에 변화의 완성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了’를 취해야 한다. (9)의 ‘嚇’와 (10)의 ‘氣’는 이런 ‘了’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동량보어 ‘一跳’와 ‘一頓’을 취해야 한다. ‘跑’는 어휘의미가 ‘뛰다’이면 자주동사이나, (12)의 ‘跑’는 어휘의미가 ‘달아나다’나 ‘도망하다’이기 때문에 비자주변화동사이다. ‘走’는 어휘의미가 ‘걷다’이면 자주동사이나, (13)의 ‘走’는 어휘의미가 ‘떠나다’이기 때문에 비자주변화동사이다.⁵⁾

4) (11)과 (12)는 劉月華·潘文娛·故韓(2001:732)에서 인용하였다.

5)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동사 앞에 ‘來/去’를 붙여서 감정하는 방식이 있다. 어휘의미가 ‘뛰다’나 ‘달리다’ 의미를 나타내는 ‘跑’와 어휘의미가 ‘걷다’ 의미를 나타내는 ‘走’는 각각 그 앞에 ‘來/去’를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我來/去(操場)跑跑。(나는 뛰러 왔다/간다.)’와 ‘我來/去(公園)走走。(나는 산책하러 왔다/간다.)’는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跑’와 ‘走’는 모두 자주동사이다. 그러나 어휘의미가 ‘달아나다’를 나타내는 ‘跑’와 어휘의미가 ‘떠나다’를 나타내는 ‘走’는 각각 그 앞에 ‘來/去’를 붙일 수 없다. 예를 들면, ‘我來/去跑(逃走)’와 ‘我來/去走(離開)’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跑(逃走)’와 ‘走(離開)’는 비자주동사이다.

‘使’구문의 VP는 위의 동사 외에도 더 많은 비자주변화동사와 비자주속성 동사로도 충당할 수 있다.

- (14) a. *你有那麼多的本領, 這些本領把你避免了一個又一個的災難, 獲得了幸福。
 b. 你有那麼多的本領, 這些本領使你避免了一個又一個的災難, 獲得了幸福。
 당신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되는 재난을 모면하게 했고, 행복을 얻게 했다.
- (15) a. *到了明清時期, 我國的民間燄火藝人繼承了前輩的技藝, 把燄火的製作工藝又有了新的發展。
 b. 到了明清時期, 我國的民間燄火藝人繼承了前輩的技藝, 使燄火的製作工藝又有了新的發展。
 명청 시대에 이르자, 우리나라의 민간 불꽃 예능인이 선배의 기예를 계승하였기에 불꽃의 제작 공예는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다.

(14b)의 ‘避免’과 ‘獲得’는 비자주변화동사로서 ‘使’구문의 술어중심어로 쓰였고, (15b)의 ‘有’는 비자주속성동사로서 ‘使’구문의 술어중심어로 쓰이고 있다. (14a)와 (15a)는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가 비자주변화동사 ‘避免’과 ‘獲得’ 그리고 비자주속성동사 ‘有’로 충당한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비자주형용사⁶⁾는 단독으로 ‘使’구문의 VP로 쓰일 수 있으나,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로 쓰일 수 없고, 비자주형용사에 정태보어를 붙여서 구성된 술보구는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다.

6) 袁毓林(1993:120)의 견해에 따르면, 비자주형용사란 의미상에서 볼 때,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상(性狀)(즉 사람이 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성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漂亮, 聰明, 可愛, 痛苦, 幸福’ 등이 이에 속한다. 비자주형용사와 상대적인 형용사는 자주형용사이다. 자주형용사란 의미상에서 볼 때, 사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성상(性狀)(즉 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은 어떤 성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謙虛, 大方, 勤快, 靈活’ 등이 이에 속한다.

- (16) a. *這個好消息把他很高興。
b. 這個好消息把他高興得流出眼淚了。
이 소식은 그를 기쁘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c. 這個好消息使他很高興。
이 소식은 그를 기쁘게 했다.
d. 這個好消息使他高興得流出眼淚了。
이 소식은 그를 기쁘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Ⅲ. 비자주성 술보구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는 절대 다수가 술보구로 구성된다. 이런 술보구는 모두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결식(動結式) 술보구, 동추식(動趨式) 술보구, 동정식(動程式) 술보구,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情態補語)’식 술보구이다. 그러나 모든 비자주 의미의 술보구가 ‘把’구문의 VP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장에서는 어떤 비자주성 술보구가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와 상대적인 자주성 술보구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이런 술보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의미 특징상 술어중심어와 보어로 충당하는 어구가 비자주성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자주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의미 지향 측면에서 술어중심어와 보어가 어떤 성분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본다.

1.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

동결식 술보구는 자주 의미와 비자주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를 A류 동결식 술보구라고 부르고, 자주성 동결식 술보구를 B류 동결식 술보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비자주성은 대체로 술어동사나 보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술어동사가 비자주적인 의미이면 이로

구성된 동결식 술보구도 비자주적인 동결식 술보구이고, 결과보어가 비자주동사이면 이로 구성된 동결식 술보구도 비자주적인 술보구이다. 이 이외에도 결과보어가 ‘到’, ‘着’, ‘見’ 등으로 구성된 술보구도 비자주성 술보구이다.⁷⁾ 그러므로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술어동사가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住’, ‘倒(dǎo)’ 등일 경우, 이로 구성된 술보구는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⁸⁾ 먼저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A류 동결식 술보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A류 동결식 술보구

A류 동결식 술보구는 다시 A₁류, A₂류, A₃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₁류 동결식 술보구

A₁류 동결식 술보구는 다시 A_{1a}류, A_{1b}류, A_{1c}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_{1a}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이고, 결과보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成爲’ 의미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와 결과보어는 모두 술어중심어의 당사자를 의미 지향한다.

嚇呆 嚇蒙 嚇傻 想苦 累病 累暈 累糊塗 高興傻
氣病 窮瘋 凍慘 餓慘 渴暈 呆膩 氣糊塗
累成 氣成 嚇成 怕成 急成 愁成 想成

7) 馬慶株(1992:30-31) 참조.

8) 馬慶株(1992:31) 참조.

急醒 熱醒 疼醒 驚醒

A_{1b}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이고 결과보어는 사람의 신체의 어떤 부위의 증상을 서술하는 변화동사나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당사자를 지향하고, 결과보어는 술어중심어의 당사자의 신체의 어떤 부위를 의미 지향한다.

氣崩 氣紅 氣痛 嚇亂 嚇疼 嚇腫

A_{1c}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변화동사 ‘長’이고, 결과보어는 사람의 성질을 묘사하는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와 결과보어는 당사자를 의미 지향한다.

長胖 長高 長大

A₂류 동결식 술보구

A₂류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변화동사나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며, 결과보어가 어떤 성분을 지향함에 따라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_{2a}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결과보어는 술어중심어의 동작자를 의미 지향한다.

喝醉 走累 聽呆 聽愣 吃病 吃窮 聽糊塗 搞糊塗
 睡懶 寫苦 熬病 幹膩 聽煩 看膩味 考糊塗

A_{2b}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사람의 신체의 어떤 부위의 증상을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동사는 동작자를 지향하고, 결과보어는 술어중심어의 동작자의 신체의 어떤 부위를 의미 지향한다.

坐麻 吃壞 灌飽 喊乾 喝紅 盼紅 喊啞 拍疼

A_{2c}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변화동사나 비자주형용사인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동사는 동작자를 지향하고, 결과보어는 술어동사를 의미 지향한다.

來巧 來晚 走齊 坐久 走遠 抽多 抽足 喝多 補完 找錯 坐够

A_{2d}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로, 결과보어는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이나 변화동사 ‘成’으로 구성된 동결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결과보어는 술어중심어의 수동자를 의미 지향한다.

挖淺 做少 穿反 買貴 做大
 辦成 作成 寫成 聽成 換成 改成 看成 譯成

A_{2e}류 동결식 술보구

이런 동결식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 ‘喊, 吵, 鬧, 說’ 등이고, 결과보어는 변화동사인 술보구이며, 결과보어는 술보구의 수동자를 의미 지향한다.

鬧醒 喊醒 吵醒 說饒 說愣

A₃류 동결식 술보구

A₁류 동결식 술보구와 A₂류 동결식 술보구에 있는 결과보어는 모두 어휘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A₃류 동결식 술보구에 있는 결과보어는 어휘의미가 변하여 어떤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 ‘얻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到’나 ‘着’⁹⁾, ‘느꼈다’는 의미(무의식적인 감지)를 나타내는 ‘見’¹⁰⁾을 붙여서 구성된 동결식 술보구는 비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나 비자주동사일 수 있으나 결과보어는 단지 이런 동사와 연계하여, 동작 행위에 대해 특수한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보어의 역할은 동작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런 동결식 술보구가 나타낸 동작 행위는 동작자나 당사자에 의해 무심코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接到 找到 買到 看到 聽到 收到 遇到 感到 受到 得到
看着 買着 遇着 找着 睡着 聽着
聽見 聞見 看見 遇見 碰見 夢見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B류 동결식 술보구

B류 동결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반드시 자주동사이고, 결과보어는 견고함이나 안정됨을 표시하는 ‘住’, ‘넘어뜨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9) 馬慶株(1992:31) 참조.

10) ‘만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見’은 자주동사이다. 예를 들면, ‘我去見見客人。(나는 손님을 만나러 가겠다.)’에 있는 ‘見’은 자주동사이다.

‘倒(dǎo)’¹¹⁾, 동작을 통하여 어떤 장소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在’, 전달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給’이면, 이로 구성된 술보구는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站住 記住 接住 抓住 握住 停住 擋住 抱住 遮住
 放在 扔在 擺在 躺在 插在 貼在 伏在(她的膝蓋上)
 推倒 打倒 壓倒 放倒 砍倒
 介紹給 讓給 送給 寄給 借給 交給 留給 捐給

조사에 의하면 이상에서 제시한 술보구 유형 중에서 A_{1a}류 동결식 술보구와 A_{2a}류 동결식 술보구만이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통사구조가 동결식 술보구의 유형에 대한 선택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모두 A_{1a}류 동결식 술보구가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로 쓰인 경우이다.

- (17) 這些日子可把我累糊塗了。
 이런 생활 때문에 너무 지치서 어리둥절했다.
- (18) 他大吼了一聲, 把我都嚇蒙了。
 그는 큰소리로 한 번 외쳤더니, 놀라서 멍했다.
- (19) 他做夢夢見錢丟了, 一着急把他急醒了。
 그는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꿔는데, 조금해서 깨어났다.
- (20) 你真把我想苦了。
 당신을 그리워서 정말 괴롭다.
- (21) 是什麼事把你嚇成這個樣子?
 무슨 일 때문에 당신이 놀라서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17-21)의 VP는 각각 ‘累糊塗, 嚇蒙, 急醒, 想苦, 嚇成’과 같은 동결식 술보구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술보구는 ‘비자주변화동사/비자주형용사+

11) 馬慶株(1992:31-32) 참조. 그러나 ‘倒(dǎo)’는 어휘의미가 ‘넘어지다’이면, 비자주동사이다.

비자주변화동사/비자주형용사’식 술보구로서 모두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의미 지향 측면에 볼 때, 술어중심어와 결과보어는 각각 ‘把’의 목적어(NP2)를 의미 지향하고 있다. 전문은 어떤 원인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어떤 심리적 활동을 하게 했거나 어떤 성상을 드러나게 해서 무심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17)을 예로 들면, ‘이런 생활(這些日子)’이 ‘나(我)’를 지치게 만들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A_{2a}류 동결식 술보구가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로 쓰이는 경우이다.

- (22) 這麼多的作業把我都寫煩了。
이렇게 많은 숙제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 (23) 這麼遠的路真把我走累了。
이렇게 먼 길이 참으로 나를 지치게 했다.
- (24) 他的話真把我聽呆了。
그의 말이 나를 멍하게 했다.
- (25) 天天的油膩菜把人都吃病了。
날마다 나온 느끼한 요리가 사람을 병들게 했다.

(22-25)의 ‘寫煩, 走累, 聽呆, 吃病’은 각각 ‘자주동사+비자주변화동사/비자주형용사’로 구성된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로 모두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이런 문장의 특징은 NP1는 술어동사(자주동사)의 동작자가 아니고 술어동사(자주동사)의 수동자이며, ‘把’의 목적어(NP2)는 술어동사(자주동사)의 수동자가 아니고 술어동사(자주동사)의 동작자이다. NP1는 술어동사의 수동자이지만, NP2로 하여금 결과보어가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감수를 드러나게 하는 원인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把’구문은 어떤 원인이 NP2로 하여금 결과보어가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감수를 드러나게 했음을 나타낸다. (22)를 예로 들면, 이렇게 많은 숙제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A_{1a}류 동결식 술보구가 VP로 쓰인 ‘把’구문과 A_{2a}류 동결식 술보구가 VP로 쓰인 ‘把’구문의 공통점은 ‘把’자의 목적어와 술어중심어 사이, 그리고 ‘把’자의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는 각각 주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7-25)의 ‘把’는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使’로 교체할 수 있다. ‘使’구문의 VP와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와의 다른 점은 ‘使’구문의 VP는 A₃류 동결식 술보구로도 구성될 수 있으나,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는 이런 술보구로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26) *a. 回到家鄉後, 家鄉的一切都把他感到親切、可愛。

b. 回到家鄉後, 家鄉的一切都使他感到親切、可愛。

고향으로 돌아온 후, 고향의 모든 것이 그에게 친근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27) *a. 這一場轉敗為勝的球賽, 把我看到我們隊員們的克服困難的堅強鬪爭的精神。

b. 這一場轉敗為勝的球賽, 使我看到我們隊員們的克服困難的堅強鬪爭的精神。

역전승을 한 이 경기는 나로 하여금 우리 대원들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투지를 목격하게 했다.

2. 비자주성 동정식 술보구

‘致使’의 ‘把’구문의 VP는 ‘비자주변화동사/비자주형용사+死/壞’로 구성된 동정식(動程式)¹²⁾ 술보구일 수 있다. 동사 ‘死’와 형용사 ‘壞’는 각각 비자주동사와 비자주형용사이며 직접 술어중심어 뒤에 쓰여서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보어는 정도보어라고 부르며, 술어동사가 나타낸 심리적 활동, 심리적 상태가 극도에 달했음을 나타

12) 형용사도 이런 술보구의 술어중심어로 총당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술어중심어가 형용사이고, 정도보어가 ‘死’와 ‘壞’인 술보구를 동정식 술보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내거나 술어형용사가 나타난 심리적 감수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보어의 의미 지향 측면에서 볼 때, ‘死’와 ‘壞’는 모두 술어중심어를 의미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정도보어로 구성된 동정식 술보구는 비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忙壞 凍壞 餓壞 急壞 渴壞 樂壞 累壞 氣壞 想壞 嚇壞 辣壞
累死 撐死 氣死 樂死 悶死 擔心死

다음은 이런 동정식 술보구가 VP로 쓰인 ‘致使’의 ‘把’구문이다.

(28) 這些天可把你公公忙壞了。

요 며칠은 당신의 시아버지를 몹시 기쁘게 했다.

(29) 今天一整天沒顧上吃飯，可把我餓壞了。

오늘 온종일 밥 먹은 것을 챙기지 않았더니 정말 배고파 죽겠다.

(30) 夜裏孩子發高燒，可把媽媽急壞了。

야밤에 아이가 고열이 나서 엄마를 몹시 조금하게 했다.

(31) 兒子不聽話，真快把媽媽給氣死了。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는 화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32) 他把我關在屋子裏，窗戶也不開，都快把我悶死了。

그는 나를 방에 가두어 놓고 창문도 열지 않아 나는 답답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28-32)는 ‘忙壞, 餓壞, 急壞, 氣死, 悶死’로 구성된 동정식 술보구가 각각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이런 술보구가 들어 있는 전문은 어떤 원인이 사람으로 하여금 극도의 심리적 활동을 하게 했거나 심리적 감수를 드러나게 했음을 나타낸다.

때로는 동정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정도보어는 ‘死’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술보구도 비자주성 술보구로 간주해야 한다.

(33) 眞把我找死了。沒想到你們住在這樣一個角落頭裏。

나는 정말 힘들게 찾았다. 너희들은 이런 구석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33)의 ‘找’라는 동작은 비록 ‘我’가 의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我’가 의식적으로 한 동작이 무의식중에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자주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극한 동작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술보구도 비자주성 술보구로 간주해야 한다.

3. 비자주성 동추식 술보구

동추식 술보구도 자주 의미와 비자주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비자주 의미의 동추식 술보구를 A류 동추식 술보구라고 부르고,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추식 술보구를 B류 동추식 술보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A류 동추식 술보구

비자주성 동추식 술보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₁류 동추식 술보구

이런 동추식 술보구는 비자주변화동사에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추향보어를 붙여서 구성된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당사자를 의미 지향하고, 추향보어는 술어중심어의 당사자를 의미 지향한다.

嚇進去 嚇出去 嚇回去 氣回去

A₂류 동추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자주동사에 없던 것이 생겼다는 확대 의미를 나타내는 추향보어 ‘出’나 ‘出來’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추향보어 ‘上’를

붙여서 구성된 동추식 술보구이다. 술어동사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추향보어는 술어동사를 의미 지향한다.

想出 查出 聽出 造出 說出來 製定出來 搜出來 打聽出 做出來
考上 吃上 念上 看上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B류 동추식 술보구

자주동사와 방향 의미를 나타내는 추향보어로 구성된 술보구는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¹³⁾ 이런 술보구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B₁류 동추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가 자주동사이고, 추향보어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추향동사인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추향보어는 술어동사의 수동자를 의미 지향한다.

拿來 拿去 搬過來 搬過去 奪過來 掉過來 還回去 拉過去 賣出去
請到(大屋子裏) 扔到(他床上) 埋到(一個平安的地方) 拉到(身邊)
引到(神桌前面) 拉到(家) 開到(十字路口) 推到(路邊) 寄到(我娘家)去

B₂류 동추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가 자주동사이고, 추향보어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추향동사인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와 추향보어는 모두 동작자를 의미 지향한다.

跑過來 走過去 跳下來

B₃류 동추식 술보구

13) 馬慶株(1992:31) 참조.

이런 술보구는 자주동사에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 ‘下去’를 붙여서 구성된 동추식 술보구이다. 술어동사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下去’는 술어동사를 의미 지향한다.

說下去 講下去 看下去 聽下去 做下去 讀下去

조사에 의하면 A₁류 동추식 술보구만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통사구조가 동추식 술보구의 유형에 대한 선택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4) 你把熊貓嚇進窩裏去了。

당신 때문에 팬더가 놀라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35) 你一嚷把孩子都嚇出門去了。

당신이 고향치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서 문밖으로 나갔다.

(36) 我把他嚇回家去了。

나 때문에 그는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37) 我們把他給氣回去了。

우리 때문에 그는 화나서 돌아갔다.

(34-37)는 모두 A₁류 동추식 술보구인 ‘嚇進去’, ‘嚇出去’, ‘嚇回去’, ‘氣回去’가 VP로 쓰인 ‘致使’ 의미의 ‘把’구문이다. 이런 동추식 술보구가 VP로 쓰인 ‘把’구문은 어떤 원인이 사람에게 무의식중에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게 해서 부득이 추향보어가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했음을 나타낸다. (34-37)의 ‘把’는 모두 ‘使’로 교체할 수 있다. 이 두 구문의 다른 점은 A₂류 동추식 술보구는 ‘使’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으나,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38) a.*他那句話把我想出了好辦法。

b. 他那句話使我想出了好辦法。

그의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했다.

(39) a.*媽媽精心地照顧兒子, 把他考上了名牌大學。

b. 媽媽精心地照顧兒子, 使他考上了名牌大學。

어머니는 정성껏 아들을 돌봐주어서 그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했다.

4. 비자주성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정태보어란 주로 동사 뒤에 ‘得’로 연결하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를 가리킨다.¹⁴⁾ 이런 정태보어를 가진 술보구를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런 술보구도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와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가 있는데, 비자주 의미의 술보구를 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라고 부르고,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를 B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₁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_{1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이고, 정태보어는 비자주성 의미의 용언성 어구인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는 모두 당사자를 의미 지향한다. 술어중심어는 원인을 나타내고, ‘得’ 뒤에 있는 보어는 결과를 나타낸다.

14) 劉月華·潘文娛·故韡(2001:598) 참조.

感動得流淚了	氣得手直發顫	忙得一點空兒也沒有
嚇得站也站不穩	熱得頭暈	累得都喘不過氣來
高興得流下眼淚了	累得直喘氣	嚇得四散五奔
憋得喘不過氣來	累得瘦成什麼樣兒了	氣得要死
驚得哭起來	氣得連一句話也說不上來了	

A_{1b}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변화동사 ‘長’이고, 정태보어는 비자주속성 동사나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인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는 모두 당사자를 의미 지향한다.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長得很像 長得很英俊 長得很漂亮 長得真可愛

A₂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_{2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정태보어는 변화동사나 속성 동사인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정태보어도 술어동사의 동작자를 의미 지향한다.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聽得入了迷	聽得不想回家	爬得滿身都是汗
教得快要累死了	看得眼都花了	走得好累

A_{2b}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정태보어는 사람 혹은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인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정태보어는 술어동사의 수동자를 의미 지향한다.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做得很好吃	洗得很乾淨	穿得真漂亮
打扮得頭光臉淨	修建得很堅固	發揮得十分具體
打掃得乾乾淨淨	描繪得十分生動	打扮得像花園一樣美麗
打扮得格外漂亮	看得很重要	擦得油亮油亮
建設得更加美麗、富強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B류 ‘자주동사+得+정태보어’식 술보구

이런 술보구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이고, 정태보어는 자주성 어구 혹은 비자주성 어구인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이다. 술어중심어는 동작자를 의미 지향하고, 정태보어는 술어동사를 의미 지향한다. 이런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는 자주성 술보구이다. 왜냐하면 술어중심어는 모두 자주동사이고 정태보어는 단지 술어중심어가 나타내는 동작에 대해 묘사, 평가 혹은 판단만 하기 때문이다.¹⁵⁾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寫得不好 說得很對 睡得很晚 來得很早 走得很快
寫得大一點兒 去得太晚了 學得相當不錯

조사에 의하면 A_{1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와 A_{2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는 모두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把’구문의 통사구조가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의 유형에 대한 선택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15) 劉月華·潘文娛·故韡(2001:597) 참조.

다음은 VP가 A_{1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인 경우이다.

(40) 他這幾句話，可把我氣得連一句話也說不上來了。

그의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나는 화나서 말 한 마디조차 할 수 없었다.

(41) 看他說得那麼真切、誠懇，我又端起杯子喝了一口，可是把我噏得咳起來了，弄得我眼角裏流出淚水。

그가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하는 걸 보고 나는 다시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으나, 사례가 들어 기침을 해서 내 눈구석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42) 晚上，我把彩芳緊緊摟在懷裏，有時由於夢中趕雞，也常常把她驚得哭起來。

저녁에 나는 彩芳을 품안에 꼭 껴안고 자다가 때로는 꿈에서 닭을 몰기 때문에 늘 그녀를 놀라게 해서 울게 만들었다.

(43) 你看，武隊長，把人急得飯都不想吃。

보세요, 武 대장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해서 밥도 먹고 싶지 않다.

(40-43)의 ‘氣得連一句話也說不上來了’, ‘噏得咳起來了’, ‘驚得哭起來’, ‘急得飯都不想吃’는 각각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40)에서 술어동사로 쓰인 ‘氣’는 비자주변화동사이고, 정태보어로 쓰인 ‘連一句話也說不上來了’는 VP가 가능식 술보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역시 비자주성 어구이다.¹⁶⁾ (41)의 ‘噏得咳起來了’와 (42)의 ‘驚得哭起來’은 각각 ‘비자주동사+得+비자주성 동추식 술보구’식 술보구이고, (43)의 술어동사 ‘急’도 변화동사이고, 정태보어 ‘飯都不想吃’는 술어중심어로 쓰인 ‘想’이 속성동사이기 때문에 비자주성 어구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술어중심어와 정태보어는 인과관계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술보구가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로 쓰일 경우, NP1과 술어중심어 사이에 다시 인과관계가 구성된다. 즉 술어중심어는 NP1의 결과인 동시 정태보어의 원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런 술보구가 VP로 쓰인 ‘致使’ 의미의 ‘把’구문

16) 馬慶株(1992:32) 참조.

은 NP1가 나타내는 원인 때문에 NP2가 술어중심어가 나타내는 상태나 성상을 드러냈고, 바로 이런 상태나 성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得’ 뒤에 있는 정태보어가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40)의 의미는 그의 몇 마디 때문에 나는 화났고, 화났기 때문에 말 한 마디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把’구문은 때로는 ‘得’ 뒤에 있는 성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44) 看把你急得。不會丟的，再仔細找找。

당신은 너무 조급하네요. 잃어버릴 리가 없으니, 다시 자세히 찾아보세요.

(45) 看把你高興得。其實，就是把信用卡弄丟了，也沒關係，別人撿到也沒用。

당신은 너무 기뻐하네요. 실은 설사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남이 습득해도 소용없어요.

(44-45)는 술어중심어가 각각 ‘急’와 ‘高興’으로 구성되었으나, ‘得’ 뒤에 정태보어가 없다. 이런 형식은 화자가 ‘你(당신)’에게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감수를 지나치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A_{2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가 VP로 쓰이는 경우이다.

(46) 他們的精彩表演把聽眾看得入了迷。

그의 뛰어난 연기가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47) 這麼厚厚的書把我看得眼都花了。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다보니 내 눈이 침침해졌다.

(48) 這條彎彎曲曲的山路把我走得好累啊!

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걷다보니 굉장히 지쳤다.

(49) 這些淘氣的學生把張老師教得快要累死了。

이 장난이 심한 학생들이 張 선생을 지치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50) 這座高山把我爬得滿身都是汗。

이 높은 산이 내 온몸에 땀나게 했다.

(51) 那有趣的故事把學生們聽得都不想回家了。

그 이야기는 흥미로워서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다.

(46-51)은 VP가 각각 A_{2a}류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인 ‘看得入了迷’, ‘看得眼都花了’, ‘走得好累’, ‘教得快要累死了’, ‘滿身都是汗’, ‘聽得都不想回家了’로 구성된 ‘致使’ 의미의 ‘把’구문이다. (46-48)의 정태보어로 쓰인 어구 중에서 술어중심어로 쓰인 ‘入迷’, ‘花’, ‘累’는 모두 변화동사이고, (50-51)의 정태보어로 쓰인 어구 중에서 술어중심어로 쓰인 ‘是’와 ‘想’은 모두 속성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태보어가 들어 있는 술보구는 비자주성 술보구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把’구문의 NP1는 술어동사(자주동사)의 수동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원인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런 ‘把’구문은 NP1이 나타내는 원인이 NP2로 하여금 정태보어가 나타내는 변화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게 했거나 정태보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갖추게 했음을 나타낸다. (46)을 예로 들면, 그들의 뛰어난 연기가 관중들을 매혹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와 술보구의 의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의미 특징 측면에서 볼 때, 단독으로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VP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비자주변화동사이고, VP에 들어갈 수 있는 술보구는 반드시 비자주성 동결식 술보구, 비자주성 동정식 술보구, 비자주성 동추식 술보구, 비자주성 ‘술어중심어+得+정태보어’식 술보구여야 한다. 동결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 심리적 활동이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와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로 충당하고,

결과보어는 반드시 심리적 활동이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나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나 변화동사 ‘成’으로 충당해야 한다. 동정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로 충당하고, 정도보어로 쓰인 어구는 ‘壞’와 死이다. 동추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로 충당하고, 추향보어는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추향동사로 충당한다. ‘술어중심어+得+정보어’식 술보구에 있는 술어중심어는 자주동사,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변화동사와 심리적 감수를 나타내는 비자주형용사로 충당할 수 있고, 정보보어로 쓰이는 용언은 비자주 의미의 용언성 어구여야 한다. 이는 ‘致使’ 의미의 ‘把’구문의 동사 유형과 술보구 유형에 대한 선택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 지향 측면에서 볼 때, ‘致使’ 의미의 ‘把’구문에 있는 술어중심어, 결과보어, 추향보어, 정보보어는 모두 ‘把’의 목적어를 의미 지향하고, 정도보어로 쓰인 ‘壞’와 死는 술어중심어를 의미 지향한다.

< 參考文獻 >

- 王力, 《中國現代語法》(上), 中華書局, 1959年.
呂叔湘, <漢語句法的靈活性>, 《中國語文》, 1986年 第1期.
_____,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年.
馬慶株,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年.
袁毓林, 《現代漢語祈使句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3年.
宋玉柱, <“把”字句, “對”字句, “連”字句的比較研究>, 《現代漢語語法論集》,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年.
張先亮·范曉, 《漢語句式在篇章中的適用性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年.
邢福義, 《漢語語法學》,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年.

-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2年.
- 申小龍,《漢語語法學》,江蘇教育出版社,2001年.
- 徐燕青,〈“使”字句與“把”字句的異同考察〉,《世界漢語教學》,1999年,第4期.
- 張豫峰,《現代漢語句子研究》,學林出版社,2006.
- 賀曉玲,〈“使”字句與“把”字句〉,《現代漢語虛詞探索與研究》,暨南大學出版社,2007年.
- 朱景松,《現代漢語虛詞詞典》,語文出版社,2007年.
- 葉向陽,〈“把”字句的致使性解釋〉,《世界漢語教學》,2004年,第2期.
- 劉月華·潘文娛·故譚,《實用現代漢語語法》,商務印書館,2001.
- 袁明軍,〈非自主動詞的分類補議〉,《中國語文》,1998年,第4期.
- 苗延昌,〈“使”자사동문의 의미론적 분석〉,《中語中文學》,1997年,第21輯.
- _____,〈“讓”겸어문의 V/V2C의 의미적 특징〉,《中國文學》,2009年,第58輯.

<中文提要>

現代漢語裏“把”字句除了表示處置義以外,還可以表示致使義。本文對表示致使義的把字句裏的VP(動詞詞組)的語義特征作了一番考察,並對致使義把字句與“使”字句的VP的語義特征進行了比較,以突出致使義把字句裏的VP的語義特征。結論是:從語義特征上看,單獨作VP的動詞必須是非自主變化動詞,能充任VP的述補詞組必須是非自主性動結式述補詞組、非自主性動程式述補詞組、非自主性動趨式述補詞組、非自主性“謂語中心語+得+情態補語”式述補詞組。動結式述補詞組中的謂語中心語可以由自主動詞,表示心理活動、狀態的變化動詞或表示心理感受的非自主形容詞充任,結果補語由表示心理活動、狀態的變化動詞或表示心理感受的非自主形容詞或變化動詞

“成”充任。動程式述補詞組中的謂語中心語由表示心理活動或狀態的變化動詞充任，作程度補語的詞語是“壞”跟“死”。動趨式述補詞組中的謂語中心語由表示心理活動或狀態的變化動詞充任，趨向補語由自主性趨向動詞充任。“謂語中心語+得+情態補語”式述補詞組中的謂語中心語可以由自主動詞，表示心理活動、狀態的變化動詞或表示心理感受的非自主形容詞充任，作情態補語的謂詞性詞語必須是非自主的。這可以看作是致使義把字句對動詞類型和述補詞組類型的選擇限制。從語義指向上看，致使義把字句裏的謂語中心語，結果補語，趨向補語，情態補語語義指向“把”的賓語，作程度補語的“壞”跟“死”語義指向謂語中心語。

주제어 : 致使義把字句, 自主動詞, 變化動詞, 非自主形容詞, 非自主性述補詞組

